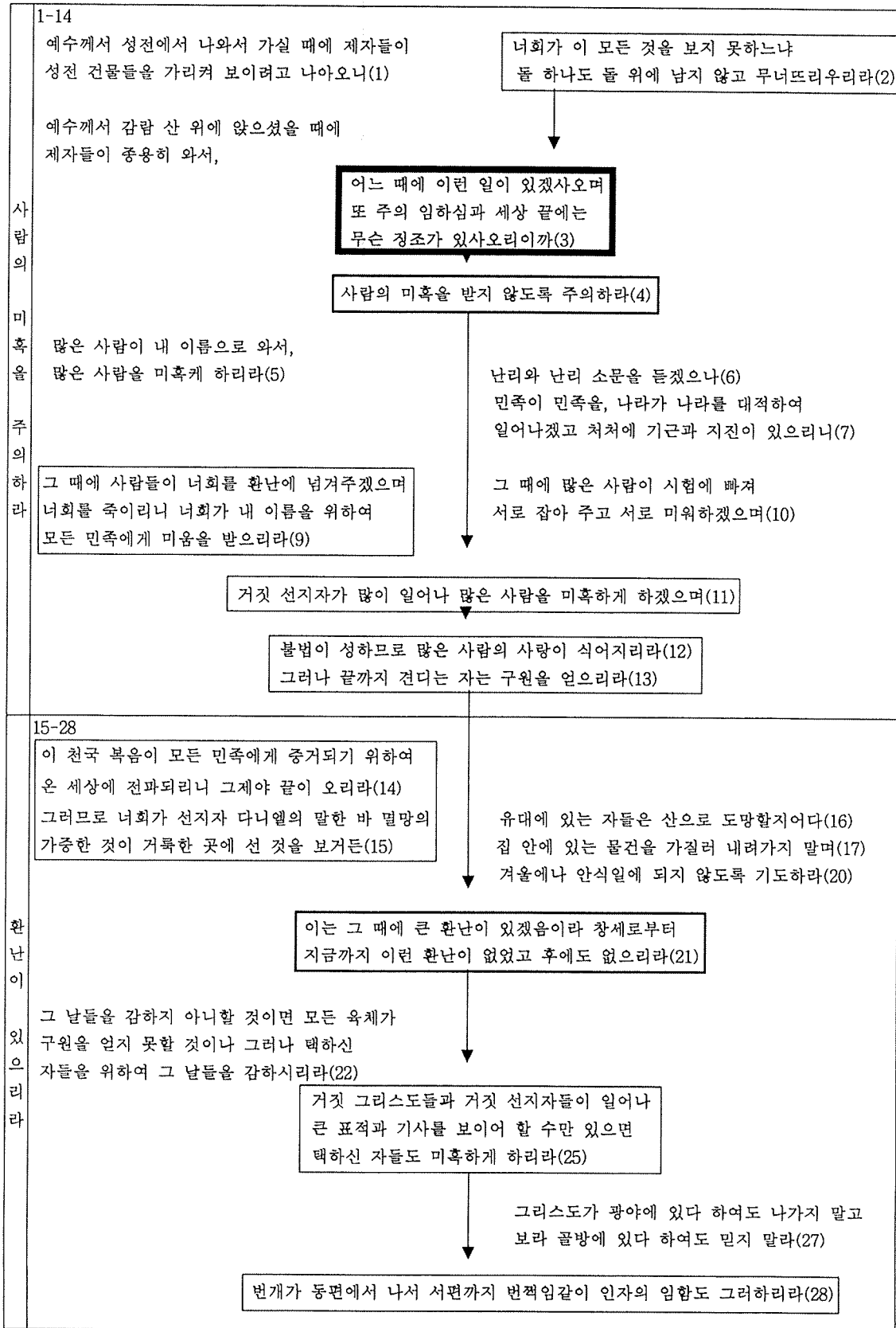


마태복음 24:1-28절 개관도표
 주제 :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1-28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절 :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25장의 중심점(中心點)은 주의 재림(再臨)에 있습니다. 24장은 이에 대한 강설(講說)이고, 25장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주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만도 11번(3, 27, 30, 33, 37, 39, 42, 44, 46, 48, 50)이나 되고 간접적인 언급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됩니다. 24장을 말씀하게 된 동기는 주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23:38),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2)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3) 하고 질문한데 응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었는데, ㉠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지는 때가 언제인가? ㉡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후심판의 그림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두 장면이 겹쳐진 그림으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24장을 두 문단(1-28, 29-51)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첫째 단원(1-14)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둘째 단원(15-28) 그 때 환난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1),

㉠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경이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에 감탄(눅 21:5)하듯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소경 됨과 답답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로 주어졌던 성막과 성전의 실체(實體)가 오셨는데(요 2:21), 주님의 영광스러움은 알아보지 못하고 건물의 아름다움에 탄복하고 있다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2상)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2하). 왜 무너져야 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집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16:18) 하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 실체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림자로 주어졌던 건물을 철거하신 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도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만 한단 말인가?

㉡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3).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주님은 이 두 사건을 겹쳐진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심판”(37)이 최후심판의 그림자이듯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최후심판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날”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 즉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등이 모두가, 최후심판을 예표하는 일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에서 확고하게 세워져야 할 점은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다가오는 종말적인 심판의 확실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 당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4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후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③ 주님은 첫 징조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4) 하고, “미혹”을 꼽으십니다. 이는 공관복음이 공통적(막 13:5, 눅 21:8)으로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누가 미혹을 하는가? 박해가 외부(外部)에서 가해지는 적 그리스도의 공격이라면, 미혹은 내부적(內部的)으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의 누룩과 같은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5) 하십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를 틈타는 자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일어났고, 이제도 있으며, 주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11, 24)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 박해보다도 어려운 싸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를 바울에게서 보는 바입니다.

④ 두 번째 징조로, “난리와 난리(6),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7) 치는 전쟁,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7)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8) 하십니다. “시작이니라” 하신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징조는 오랜 동안 계속될 것이며, 더욱 격화되어 갈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세상 징조라면,

⑤ 세 번째 징조로 교회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밖으로는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9) 하시고,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겠으며”(11) 하십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12),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① 이런 중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14) 하십니다. 여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9),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14)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24장 말씀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14)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임이 나타납니다. 이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던”(창 1:2-3) 것과 같이 점점 혼란스러워 가는 세상에 복음이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해줍니다.

② 이 징조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당장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잠며 잤다”(25:5)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므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로 생각”(눅 19:11)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십니다. 둘째로, 세속 사회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걸잡을 수 없는 혼돈(混沌)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③ 무엇보다 우리가 유념해야할 점은 셋째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10),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12) 하심이 이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혹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도, 주님의 답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 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3-24)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구원 얻은 자가 겨우 여덟 명”(벧전 3:20)이라 말씀하고, 엘리야 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 천을 남겨 두었다”(롬 11:4)고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날에는 “남은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할 말씀입니다.

④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는 원인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박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미혹”으로 인한 변질 때문임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점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형식적인 믿음)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4) 하십니다. 지금이 이러한 것은 아닌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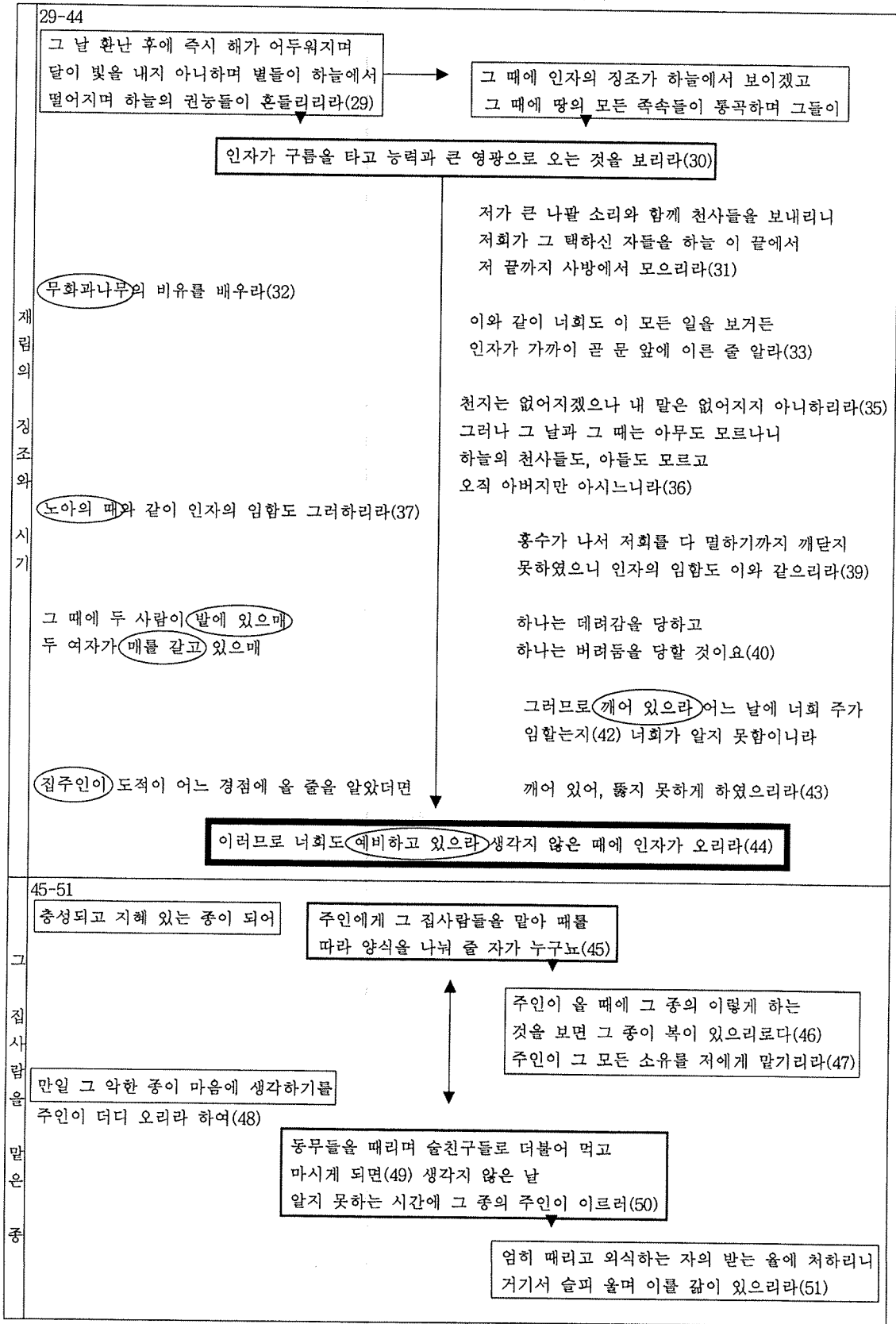
둘째 단원(15-28) 그 때 환난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15),

① 15절은 해석상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논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난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4장의 중심주제가 “멸망의 가증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리라” 하신 재림에 있음을 꼭 붙잡기만 한다면 그런 지엽적인 것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4장에 대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때에 다 성취되었다는 견해와, 정반대로 주님 재림 직전의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4장 말씀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경계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② 먼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우군(友軍)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다니엘 당시와, 주님 당시의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1차적으로 주전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뜰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모독한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고는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짓밟고 파괴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본문 16-20절까지는 그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16) 하십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남은

마태복음 24:29-51절 개관도표
주제 :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29-51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절 :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 둘째 문단의 중심점은 주님의 재림이 홀연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44)는 데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30)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36)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37) 하십니다. 다만 징조를 보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33)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44)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45)과, 악한 종(48)을 대조해서 말씀하심으로 목회자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29-44) 재림의 징조와 시기

둘째 단원(45-51) 그 집사람을 맡은 종

첫째 단원(29-44) 재림의 징조와 시기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29).

① 겹쳐진 그림은 이제 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임하였으나, 이제 종말적인 환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21) 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22) 하십니다.

② “재림의 징조”로 천체(天體)에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는 징조는 구약성경(사 13:10, 율 3:15)과, 계시록(계 6:12-13)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30상) 하십니다.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던, 이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30하) 하십니다.

③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31) 하십니다. 잠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21장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몇 일 후면 양을 잡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라”(눅 22:15) 가버나움으로부터 올라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대속물”(20:28)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에 앉아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데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5) 하십니다. 이것이 원줄기와 같은 말씀이요, 본 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④ 32-44절에서는 짝막한 다섯 가지 비유(무화과나무, 노아의 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매 가는 여인, 집 주인)를 들어서 경계하시는데, ㉠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앞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32-33) 하십니다. ㉡ 노아의 때를 통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39) 하십니다. ㉢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매 가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둠을 당할 것이니라”(40-41) 하십니다. ㉣ 집 주인 비유를 통해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43) 하십니다.

⑤ 다섯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42)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44)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 비유도 “예비하라(25:10)는 것과, 깨어 있으라”(25:13)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막 13:33-37)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며, 예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다음 단원과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45-51) 그 집사람을 맡은 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45).

① 주님은 “깨어 있는 것과, 예비하고 있는” 것을 먼저 “그 집 사람을 맡은 중”, 즉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 자격조건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고, “충성과 지혜”를 꼽으십니다.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계 2:10)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충성된 증인”(계 1:5)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성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 하면서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10:16) 하셨습니다. ㉡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롬 12:2)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후 2:11) 함에서입니다.

② “그 집 사람을 맡은 중”의 임무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는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고유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 사람들의 사활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23:13-14) 하고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혜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충성을 한다 해도 지혜가 없다면 “일만 만드는 자”(살후 3:11)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 누가복음에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눅 12:42)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주

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계 19:11)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실”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말에는 줄”(고후 11:6)하여 그의 설교가 유창하지 못하다하여도 진실성만 있다면 성도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④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46) 하십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깨어 있는 것이요,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6)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47) 하십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

①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48), 하고 “악한 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같은 신학교 출신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으로 분별이 되는가? 첫째가, “좋은 씨를 뿌리느냐, 가라지를 뿌리느냐”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한다면 바른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 3:4) 하고 기롱하고, 악한 종은 심중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오실 날과, 우리의 죽을 날을 모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히 3:13) 하십니다.

②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49) 합니다. 이러한 악한 종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 담을 쌓을 때에 회칠하는 자,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겔 13:4, 10, 18)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파수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사 56:10-12) 하고 책망합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인가? 구약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③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50) 합니다. 악한 종과 결부해서도 주님의 재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덩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눅 21:34-36)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살전 5:4-6) 말씀합니다. 이 악한 종은 “깨어 있지 않았습디다. 예비하고 있지 않았습디다”, 그러하다가 도적같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④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울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갹이 있으리라”(51)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갹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갹이 있으리라”(8:12) 하십니다. ㉡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갹이 있으리라”(13:41-42) 하십니다. ㉢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갹이 있으리라”(22:13) 하십니다. ㉣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갹이 있으리라”(25:30)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종”(51)입니다. 여기에 열거 된 부류 들은 모두가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약 3:1)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만 하 겠습니다.

⑤ 24장을 마치기 전에 어찌하여 주의 재림이 이처럼 강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만 하 겠습니다.

㉠ 구속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건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 22:12-13) 하십니다. 만일 죽으 시 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는 알파와 처음과 시작은 되시나, 오메 가와 나중과 끝은 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 라건설의 완성에 있습니다.

㉡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하 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사 53:11) 하십니다. 주님은 대속하신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 사탄을 온전히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권세를 잡은 자 사 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온전히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하십니다. 그 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 될 것입니다.

㉣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5)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미 뻘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3).